

광주 기후환경에너지대전, 1만7천여명 방문 ‘성황’

215개 기업 등 418개 부스 운영
대기업-중기 매칭 458억 성과
포럼·사진전·친환경 체험 호응
“기후위기 대응 해법 모색 자리”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KEET 2025)’이 성황리에 폐막했다

광주시는 지난 9~1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에 관람객 1만7400명이 다녀가고, 524건의 구매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KEET 2025’는 광주시,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 동반성장위원회, 코트라가 주관한 호남권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기후환경 산업전으로, 국내 215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418개 전시부스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에너지 효율, 수소연료전지차, 탄소중립 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제품이 소개됐다. 특히 한전KDN 전시관은 재생에너지감시제어장치, 수소도시플랫폼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해외수출상담회, 동반성장페어와 광주기후에너지 정책 세미나 등 18개의 부대행사도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

전시회 기간동안 1만7400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 중에는 국내외 바이어도 다수 포함돼 활발한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으며, 총 524건의 구매상담 성과를 거뒀다.

동반성장페어에서는 79개 대기업과 136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432건의 1:1 기업 매칭 상담이 이뤄졌고, 약 458억원 규모의 상담액이 기록됐다.

KOTRA 수출상담회에서는 15개사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해 92건의 상담을 진행, 약 900억원(66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와 함께 해외 진출의 가능성도 높였다.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도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체험 행사 ‘넷제로 마켓(Net-Zero Market)’은 큰 인기를 얻었다. 관람객들은 야생동물 사진 전시회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천연 수제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몸소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부대행사로 열린 ‘에너지·기후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등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계·학계·정책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과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전시회로 “산업계와 시민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은행, ‘우리동네 골목대장’ 로컬 명소 이벤트

광주은행이 오는 11월30일까지 젊은 세대 시선으로 발굴한 지역 명소를 투표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우리동네 골목대장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 지역의 숨은 명소를 주제로 한 밸런스게임 형식의 참여형 이벤트다. 매주 월요일 광주와뱅크에 공개되는 두 가지 콘텐츠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하고, 선택한 콘텐츠가 해당 주차의 우승 콘텐츠로 선정될 경우, 참여자에게는 행운카드 1장이 지급된다.

획득한 행운 카드는 △교촌 반반 오리 지날 + 콜라 1.25L △GS25 1만원권 모바일 교환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까르보 불닭볶음면 경품 응모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의 즐거움과 보상을 동시에 제공한다.

밸런스게임에 등장하는 주제는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직접 발굴한 지역 명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피크닉 명소, 독서하기 좋은 공간, 숨은 맛집 등 젊

은 세대의 시선에서 새롭게 조명된 로컬 콘텐츠들이며, 고객들은 단순한 투표 참여를 넘어 지역 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은행은 오는 8월 24일까지 ‘매일 용돈받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광주와뱅크에서 오늘의 미션 6가지(생활혜택모아보기, 상품몰 추천, 걸을 수 서비스, 오락실 서비스, 쿠폰마켓 서비스, 오늘의 운세 서비스) 중 일 최대 4가지 미션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페이지에 10초간 머무는 것만으로도 1원부터 최대 10원까지 실시간으로 소액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이벤트 참여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와뱅크,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아이오닉 6 N’ 데뷔

현대자동차가 영국 ‘2025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Goodwood Festival of Speed, 이하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아이오닉 6 N(IONIQ 6 N, 아이오닉 식스 엔)을 성공적으로 데뷔시켰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 열린 자동차 축제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 참석한 (오른쪽부터)현대차 N매니지먼트 실 박준우 상무, 글로벌사업관리본부장 이영호 부사장, 차량개발담당 만프레드 하러(Manfred Harter) 부사장, 전동화개발담당 한동희 부사장, 유럽디자인센터장 에두아르도 라미레스(Eduardo Ramirez) 디렉터가 N 퍼포먼스 파츠가 장착된 IONIQ 6 N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

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지원 3년 연속 ‘최우수’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정보 분석 등 관리 노력 ‘호평’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한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중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019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기초 및 고도화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왔으며, 보급·확산과 사업홍보,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에 대한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남형 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활용해 구축 기업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분석 및 온라인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성과관리체계를 정립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827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왔으며, 현재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과 ‘지역특화형(식품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2차 공고를 진행 중이다.

15일에는 영암에 위치한 조선해양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두 사업의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윤준명 기자

기아, 연식변경 ‘The 2026 쏠렌토’ 출시

기아가 국내 대표 중형 SUV 쏠렌토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6 쏠렌토’를 14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The 2026 쏠렌토는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이 강화되고 실내외 디자인 고급감이 향상돼 전반적인 상품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The 2026 쏠렌토의 모든 트림에 차로 유지 보조 2와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를 기본 적용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 선호도가 높은 기아 디지털 키 2와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을 인기 트림인 노블레스부터 기본화해 실용성을 한층 높였다.

The 2026 쏠렌토는 새로운 디자인

의 4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탑재됐으며, 앰비언트 라이트가 1열 도어 맵포켓까지 확대 적용돼 실내 고급감이 더욱 향상됐다.

기아는 The 2026 쏠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에 세련된 디자인의 19인치 신규 휠을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에 추가된 19인치 휠은 시그니처 트림부터 선택 가능하며, 2WD 모델의 경우 19인치 휠 선택 시에도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아는 기존 그래비티 트림의 명칭을 ‘X-Line’으로 변경하고, 블랙 색상의 엠블럼과 휠캡을 추가해 디자인 특화 트림 X-Line만의 강인한 느낌을 극대화했다.

박소영 기자



The 2026 쏠렌토 X-Line. 기아 제공